

電氣學會의 進路

崔 順 達*

尊敬하는 電氣 學會 會長님 그리고 會員 여러분!

오늘 本人이 總會에 參席하여 여러분께 平素 생각 하는 바를 피력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된것을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電氣 學會를 이렇게 훌륭한 學會로 成長시킨 朴旻鎬 會長님을 비롯한 여러 任員들과 會員 여러분의 勞苦에 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며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世界的으로 유래 없는 不況속에서도 唯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方法은 오직 技術 振興뿐이라는 旗幟 모두들 技術立國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電氣工學의 重要性은 무엇보다도 더욱 높히 認識되어야 하겠습니까.

電氣工學은 오늘날 우리 生活에 最高級 形態의 에너지를 供給하는 것은 勿論 모든 文明利器의 基礎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電氣工學의 活用度는 곧 그나라 文明의 尺度라 해도 過言이 아니겠으며, 電氣工學者들의 水準即 電氣 學會의 活性化와 그 水準이 곧 그나라의 技術尺度라 하여도 좋겠습니다.

電氣工學은 太古에서 부터 始作된 學問이며, 이를 통해 수없는 學問들이 派生되어 왔습니다.

특히 近年에 와서는 機械的으로 始作되었던 産業革命을 完成시켜 주었으며, 컴퓨터라는 새로운 學問을 誕生시켜 第二의 産業革命을 主導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世界는 機械的인 구동과 機械的인 힘의 增幅이 主導하는 한段階 높은 에너지를 통해 人間의 精神의 能力을 增幅시켜주는 情報産業社會를 이룩하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物理的인 距離感을 超越하고 모든 社會가 하나의 有機的인 시스템으로서 움직여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理解하고 先導해 나갈 수 있는 能

* 正會員: 遞信部 長官

력을 가진 唯一한 學會가 電氣 學會라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항상 技術의 獨立없이는 經濟的인 獨立이 있을 수 없으며 오늘날과 같은 産業社會에서 經濟的인 獨立없이는 政治的인 獨立이 있을 수 없다고 主張해 왔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政府는 技術振興을 통한 産業發展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政府는 이러한 意志의 表現으로 技術開發株式會社를 設立하고 研究開發資金을 支援하고 있으며 科學技術處를 통한 國策 研究資金 商工部를 통한 技術開發振興資金, 産業銀行을 통한 技術開發融資등 많은 窓口를 設定하여 多角的인 方法으로 財定支援을 強化하고 있습니다.

또한 制度的인 면에서도 政府의 購買力을 活用하여 國內的으로는 國產技術製品의 市場을 提供하고 國際的으로는 첨단技術을 獲得하는 道具로 活用하고 있으며 研究人力에게 兵役의 特惠를 베푸는 등 高級人力의 確保와 養成에도 努力하고 있습니다.

遞信部도 이러한 政府의 技術開發 努力에 발 맞추어 電氣通信公社를 통하여 韓國電氣 通信研究所로 하여금 電氣 및 通信分野의 技術開發에 邁進할 수 있도록 財政과 制度的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一九八六年까지 總 二四〇億원을 投資하여 韓國型 時分割電子交換機를 開發하는 研究事業을 核心事業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여기에 必要한 先進技術은 通信公社의 外資購買條件으로 獲得提供하고 있습니다.

그 以外에도 光通信 시스템의 開發과 未來 情報社會의 實現을 爲한 研究등 여러 分野에서 研究事業을 進行하고 있습니다.

遞信部로서는 政府業務의 電算化 및 情報化 社會의 具現을 위한 先導的인 立場을 維持하고 技術事業部處로서의 本分을 찾기 위하여 最善을 다하고 있음

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린 技術開發事業을 보다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他部處와의 協力を 圖模할 수 있도록 必要的인 制度的인 裝置를 準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政府의 意圖에 발맞추어 우리 技術者들은 技術人으로서 또 企業人으로서 最大의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過去 우리나라의 技術發展狀態를 보면 技術導入이라는 美名아래 外國商品을 들여와 國內市場을 席卷하고 技術開發意慾을 抹殺 시켰으며 다시 同種의 技術導入을 反復하는 악순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技術導入이 악삭빠른 商魂으로 商品導入이나 商標導入으로 둔갑하던 過去의 惡夢에서 깨어나 技術開發의 意志와 創意力을 심분 發揮할 수 있으며 技術導入이 眞情한 意味의 技術導入이 되고 단순한 製品의 國産化가 아니라 그의 바탕이 되는 源泉技術을 國産化해야 하는 時代가 왔다고 本人은 確信합니다.

技術은 어디까지나 源泉의인 學問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만 健全한 技術으로써 生命을 維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健全한 技術의 바탕은 勿論 健全하고 활발한 活動을 하고 있는 學會의 存在를 前提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 電氣學會의 進路는 明白하다고 생각합니다.

學會의 活動領域을 擴張하고 새로운 分野의 開拓 특히 他分野 學問과의 紐帶를 強化해 나가는 것은 勿論 ROBOTICS MECHATRONICS, GEOPHYSICS SYSTEM CONTROL, TELEMATIQUE 등 INTERDISCIPLINARY SCIENCE의 果敢한 研究 및 分野의 擴大에 對한 즐기찬 努力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電子工學會와는 果敢히 統合을 成就시키고 統合된 學會의 擴大된 會員 勢力을 利用하여 會員相互間의 交流를 增進시킬 뿐만아니라 國內外 類似學會와의 交流를 擴大함으로써 學問의 交流를 增進시키고 學會活動의 活性化 및 安定化를 期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本人은 우리나라의 産業도 시스템産業의 先導아래 部品産業의 發展 및 全體産業의 振興을 追求해야 한다고 確信합니다.

시스템産業은 곧 電氣工學의 同意語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겠습니다. 未來社會의 追求와 新規學問의 創出, 그리고 社會의 均衡있는 發展등, 이 모든것이 共存共生의 原則아래 시스템이라는 巨視的인 眼目으로 만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宿題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産業의 觀點은 포용성이 있으며, 相扶相助의 原理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世界 여러나라의 學會의 現況을 볼 때 시스템적인 觀點에서 서로 相扶相助하고 포용력이 큰 學會만이 世界의인 學習의 勸威를 누리는 成功的인 學會라 하겠습니다.

특히 美國의 IEEE는 原來 分離되어 있던 AIEE 와 IRE가 統合함은 勿論 國境의 限界까지도 超越하여 포용력을 넓힘으로써 世界 最大의 學會를 이루었을뿐만 아니라 世界 最高의 勸威를 同時에 獲得할 수 있었던 좋은 例라고 생각됩니다.

本人은 學會의 活性化는 곧 技術立國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며, 恒久的인 技術의 源泉을 開發하는 것이라 確信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類似學會와의 더욱 緊密한 協助 내지는 統合을 提言하는 것이며 이를 電氣學會가 先導해 주실것을 當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電氣工學者들은 五千年의 土農工商이라는 技術賤視의 歷史속에서도 오늘과 같이 技術立國을 부르짖을 時機가 올것이라는 것을 確信하고 技術을 배우고 익혀온 先覺者들입니다.

우리는 工學者로서 技術立國의 核心을 맡은 責任을 完遂하여 五千年 歷史속에서 처음으로 주어진 이 唯一한 機會를 심분 活用함으로써 기필코 先進富國의 遺産을 子孫萬代에 남겨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것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本人으로 하여금 이자리에서 平素 생각하는 바를 披瀝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 주시고 오랫동안 傾聽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朴晷鎬 會長님과 學會任員, 그리고 여러 會員들께 感謝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一九八二年 十一月 二六日

通信部長官
崔 順 達